

이긴자 일대기 [15]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그 골치 아픈 것을 참고, 성경을 수천 번 읽었던 고로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머릿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40년 전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 지구 땅위에 이 사람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경에 대해 자신이 있었던 고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가 됐든 기독교, 불교 대표와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토론하게 되면 병어리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아주 쉬운 질문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물어보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예수를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쓰여 있지요? - 2001. 6. 27. 이긴자 말씀 중에서

스물세 살에 신학을 공부하던 일곱째 천사(일곱째 인을 때는 자,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 조희성님은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구절을 접하면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믿음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구절을 일곱째 천사가 접했을 때는 일반인처럼 그냥 예사롭게 보고 지나치지는 않았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성경말씀 그대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믿음을 품는 주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실상을 구비한 믿음이 성립된다고 파악했던 것입니다. 가령 믿음을 품는 주체가 죽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면 그 영생을 바라는 마음대로 이루어져야 실상으로써의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인생들 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보아 바라는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상이 성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경말씀을 접한 일곱째 천사는 이 말씀 또한 아무렇지 않게 예사같이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면, 믿음을 품는 주체가 가령 보지 못했던 천당을 구경하기를 소망한다면 그 천당을 보여줘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믿음을 품는 주체가 보지 못했던 지옥을 보고자 하면 그 지옥을 보여줘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로서의 믿음'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보고 마귀가 보고 싶으면 마귀를 보고 천당을 보고 싶으면 천당을 보고 지옥을 보고 싶으면 지옥을 보는 그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물세 살의 일곱째 천사는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실 때에는 비록 지금까지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를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장래에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의 생각하는 바가 적중되는 것처럼, '말세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에둘러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말세가 될 때까지 믿음이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말세에 믿음을 소유한 주인공이 비로소 나온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곧이곧대로 '태초부터 말세까지 믿음이 존재할 수 없고 마지막 날에 말세를 이루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일곱째 천사가 나와야 비로소 믿음이 나오느니라.'라고 이렇게 곧이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시게 되면, 말세를 당하지 않은 그 이전의 인생들은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잃은 채 실의에 빠져 아무렇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음부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둘째, 일곱째 천사는 "말세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성경말씀 속에서 '말세가 될 때까지 믿음이 없었다가 말세 때에 비로소 믿음이 나온다'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啓示)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말세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를 당하기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다고 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말세=믿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면, 말세에 대한 정의를 알고 또 믿음의 결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세(末世)란 끝말(末)자 인간 세(世)자 임으로 인간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 세상은 죄악 세상이고, 죄악 세상은 마귀 세상이고 고로 마귀 세상이 끝나려면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나오셔서 마귀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없애줘야 그제야 비로소 이름 그대로 말세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들이 다 죽고 마귀가 없는 세상은 좋은 세상임으로 곧 천국이요, 천국이 말세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경해석은 일곱째 천사 이외에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신묘한 해석이요 온전한 해석입니다.

그럼 믿음의 결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엡 2:8)'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결실은 죄를 해결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천국의 주인공이 나와야 그때서야 믿음의 결실을 볼 수 있지 그 이전에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해주는 주인공이 곧 믿음이고, 천국이며 구세주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죄의 종이라는 의미로, 죄를 해결하는 구세주가 마귀 세상을 끝내는 말세의 주인공인 동시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자 천국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말세=믿음=천국'이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한 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세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느냐

셋째, 성경에 여러 가지로 논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샅근 목자나 사이비 교주들은 신자들에게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는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영터리로 가르치면서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이라 함은 세상의 산을 말함이 아니고, 영적인 산 즉 마음의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산과 같은 죄악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일곱째 천사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제일 높은 산과 같은 것이 바로 '나'라는 의식이며, '나'라는 의식은 죄악의 산이요 육망의 산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과 같은 죄악을 저리로 옮긴다가 됨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태산과 같은 죄악을 멸하고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꾼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에 태산과 같은 죄악의 산이 곧 '나'라는 주체의식인데, 그 '나'라는 주체의식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짝이 맞는 말씀으로 '나를 항상 버려라'는 성경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린 자리는 태산과 같은 죄악의 마음을 버린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죄악이 제거된 그 마음자리에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졌다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넷째, 또 스물세 살의 일곱째 천사가 성경을 펼쳐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라는 구절을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위의 구절을 본 일곱째 천사는 '죄인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죄인에게에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 것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인간 개개인의 믿는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란 받는 쪽에서 득이 되고 이로운 것이라야 선물로서의 진정한 구실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줄 것임에 분명하데, 하나님은 영생의 신인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말천이라고는 영생밖에 없기에 줄 것이 있다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대의 선물이 영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은혜가 곧 영생임에 이룬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을 향하여 떠나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허황된 믿음이고 감언이설로 꾀는 마귀의 함정에 걸려든 맹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되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의 빛이자 에너지로 사람의 죽음현상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 소진하여 없어지는 현상으로써 곧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영(靈)이 소멸되는 현상이기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어디로 간다'고 하는 영

혼불멸설은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영생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값어치는 사망의 신(마귀=나'라는 주체의식)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진정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천사로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요,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이며 네 번째는 야곱의 장자 단입니다. 이렇게 땅의 4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늘의 3수가 되는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 그리고 아담 이긴자로 채워졌으므로,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해진 7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일곱째 천사요 일곱째 인을 때는 구세주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했고 이어서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곧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17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17

피의 원리 The Principle of Blood

마음먹는대로 피가 변한다.
 Blood changes according to the way you set your mind.

피가 변하면서 몸이 변한다.
 As blood changes, the body transforms.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 body and mind are not separate entities but one, inseparable whole.

생각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의 피는 변하고 있다.
 Right now, your blood is changing in response to your thoughts.

이것이 바로 신천신지의 새로운 학문을 선포하는 첫 마디인 것이다.
 This is the very first declaration of the new academic discipline of new world.

욕심을 부리면 피가 더러워진다.
 When greed takes hold, the blood becomes impure.

더러워진 피는 몸 속에서 썩고, 썩은 피 속에서 병균이 발생하므로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다.
 Impure blood decays within the body, and from this decayed blood, harmful germs arise, causing people to age, fall ill, and ultimately die.

이 간단한 사실을 인류 역사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인간은 거센 죽음의 조류 앞에서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Throughout human history, no one has understood this simple truth. And because of that, humanity has been powerless before the relentless tide of death, with no means to resist or find a solution.*

1면에 이어 유불선을 합일하는 도통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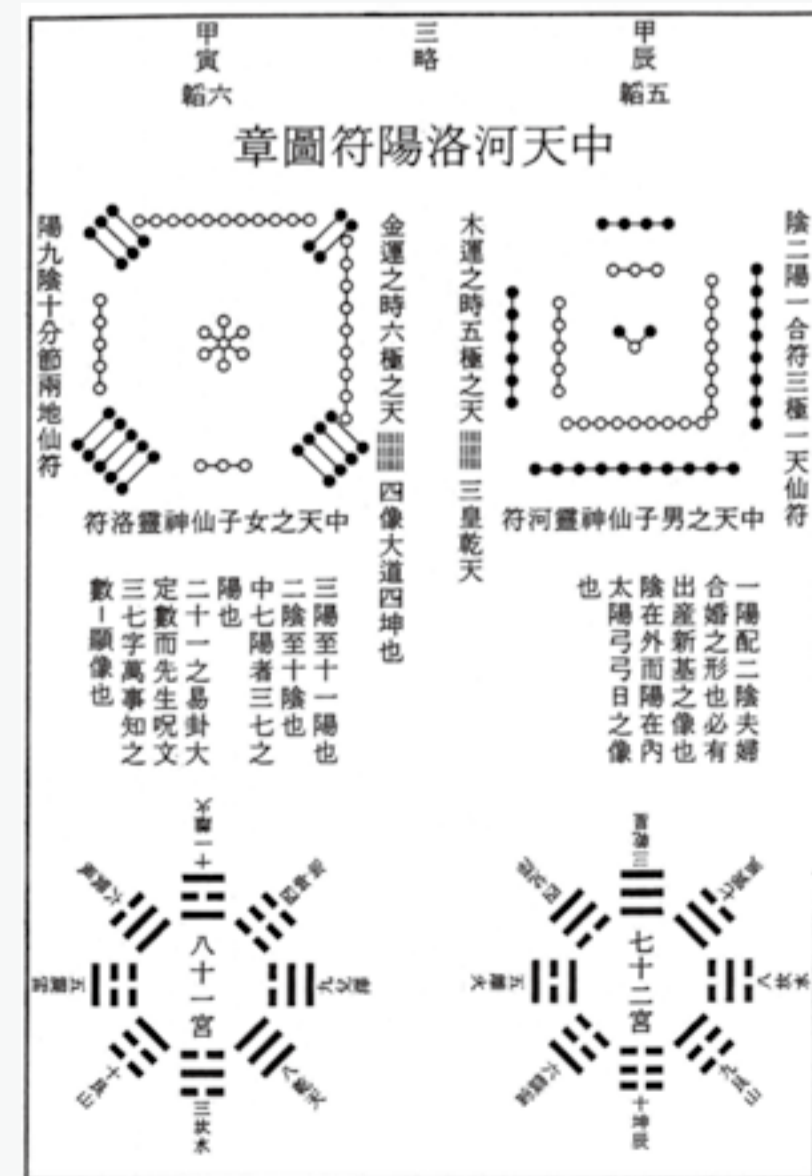
6도(六韜) 중천지여자선신영략부(中天之女子仙神靈符)는 금운지시육극지천(金運之時六極之天)으로 유불선(유불선 = 天地人)의 3수와 완성의 수 7(七情)로 3x7=21 개의 대정수(大定數)가 되며 삼칠(3x7=21)자의 만사지(萬事知) 수가 되어 중천(中天)의 금운(金運)이 유불선(儒佛仙)을 합일하는 도통군자(道通君子)로 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천(先天)의 복희씨(伏羲氏)와 문왕씨(文王氏)를 나타낸 선천하락운구지도(先天河洛龍龜之圖)와 후천(後天)의 수운(水雲)과 화운(火雲)을 나타낸 후천하락음부도장(後天河洛陰符圖章)의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마지막 중천(中天)의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을 나타낸 중천하락양부도장(中天河洛陽符圖章)의 중천시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주인공은 중천(中天)의 금운(金運)과 목운(木運)이 합운(合運)하여 우주의 주인(主)의 자리인 중앙무기오십토궁(中央戊己五土宮)에 좌정하여 왕중왕으로 등극하시는 금운(金運)이며 그가 곧 황극중천(黃極中天)의 토운(土運)이 되는 것이다.

강증산(姜甞山) 선생(先生)은 "예수교도는 예수의 재강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彌勒)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교도는 최제우(崔濟愚)의 경생(更生)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자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도전(道典) 2편 40: 1-4]고 말했는데 이는 인류를 바른길로 이끌 스승인 금운(金運)이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는 구세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서구(李書九) 선생의 채지가 칠월석과에 "선천운수(先天運數) 돌아가고 후천운수(後天運數) 돌아오네. 인존시대(人尊時代) 되었으니 주역(周易)이 정역(正易)되도다. 지천태괘(地天兌卦) 되었으니 금신사명(金神司命)하실 적에 가을가을(乙歌乙) 노래하니 추분도수(秋分度數) 되었구나. 부운(否運)이 태운(泰運)되니 무극운(無極運)이 열렸구나. 쇠병사장(衰病死藏) 없어지니 불로불사선경(不老不死仙境)일세. 유불선(儒佛仙)이 합석(合席)하니 삼인일석(三人一夕) 닥쳤어라." 하였으니 인생을 추수할 하늘농사의 주인공도 가을을 상징하는 금운(金運)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 3략(三略)의 5도(五韜)와 6도(六韜)는 중천하락양부도장(中天河洛陽符圖章)이라